

尹 “16년간 280조 투입 출산율 0.75명…실효성 정책 추진 필요”

“인구 정책, 과학과 데이터 기반으로 접근해야” “저출산고령화위, 100세시대 컨트롤타워 개편”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인구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에 2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의 전면 개편, 지방시대 개막과 연계 등을 통한 정책 전환을 제시했다.

이는 지역에서 출산율이 전국 평균에서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방소멸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인구정책을 지방균형발전과 연결해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화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국무회의로 각 지자체를 돌며 정례화해 지자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해 균형발전의 중심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의 9월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 합계 출산율 2.32명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 국가별 순위는 236개국 중 두 번째로 낮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전 아웃렛 화재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희생하신 분들을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화재는 현대식 시설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행안부, 소방당국 등 관계부처는 현재의 재난 관리 방식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 보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새출발기금 시행령을 의결하고, 정부위원회 정비 법률안을 상정했다.

윤 대통령은 새출발기금과 관련해 “무너진 서민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정부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돕겠다”고 말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는 기존 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대출로 전환해 대출금리를 3-5대로 낮춰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날 시행령을 의결하고 10월부터 새출발기금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위원회 통합과 관련해 “유명무실하거나 필요성에 대한 고민 없이 운영되는 식물위원회, 중복 위원회를 과감하게 퇴진하거나 통합함으로써 정부부터 허리를 졸라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부위원회를 39% 감축해 3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한다는 목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이를 위해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개편안’을 부처별 상임위원별로 묶어



안건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영국미국 캐나다 순방 성과도 공유하면서 관련 부처들에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연설에서 밝힌 우리의 핵심가치인 ‘자유와 연대’정신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기여에 대해 각 정

상들과 협력의 지지를 확인했고 경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이어 “첨단산업,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유치와 신기술분야 협력까지 이끌어냈다”며 “관련부처는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박형대 도의원, 전남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조례 개정 토론회

전라북도 90억원 차액지원 할 때 전라남도도 0원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한계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지난 23일 오후 3시 30분에 전라남도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박형대의원(진보당, 장흥)이 주최했고, 전농 광주전남연맹이 주관했으며, 김성일의원(민주당, 해남), 최정훈의원(민주당, 목포), 오미하의원(진보당 영광), 감미경의원(정의당, 비례)이 참석했다.

기조발표에 나선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기획연구팀장은 농산물 가격안정제도가 실효성이 없는 가장 큰 원인은 기준가격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농민들의 생활비를 보장하는 새로운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북도의원 오은미의원(진보당, 순창)은 전북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전북의 경우 차액보전 사업을 진행하여 나름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전북은 3년간 농민들에게 90억원의 차액보전을 한 반면에 전남은 전혀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비교되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농민들도 전남도가 현재의 조례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며 실질적 제도로 발전하길 요청했다.

박형대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더욱 현장의 의견과 전남도와 협의하여 조례 개정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재환기자

국민의힘, MBC편파조작방송진상규명 TF 발족

“MBC, 끊임없이 당에 대해 편파적 방송 전력”

국민의힘은 27일 MBC 편파조작방송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편파 방송시정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특위 출범을 발표하면서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TF 위원장으로서 박대출 의원이 맡아주시기로 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MBC편파조작방송진상규명TF 위원에 박성중·윤한홍·윤두현·최형두·장동혁·조수진 의원이 내정됐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논란 발언을 최초 보도한 MBC를 겨냥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보도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향간에 돌아다니는 받은 걸 소위 ‘지리시’를 자막 입혀서 그대로 방송하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책임을 포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MBC는 지난해 야권 유력 대선 후보 부인을 취재하기 위해서 경찰 사칭까지 하며 취재 윤리를 내팽개친 전력도 있고 끊임없이 우리 당에 대해서 편파적인 방송을 해온 전력이 있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당 안팎의 사정이 매우 복잡 다단하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서로 상황을 공유하고 합심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번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완전히 경색됐던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첫발을 떼었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에 화살을 돌려 “야당은 무슨 기회라도 잡는 듯이 막말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면서 “전혀 무관한 복지보건부 장관 인사청문

회에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청문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 해외 순방 성과를 폄하하려는 다분히 정략적인 의도일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자해행위라는 점도 인식해줬으면 좋겠다”고 비난했다.

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한 민주당에 향해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끝까지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해임을 조자통 한 칼 쓰듯 꺼내고 있다”면서 “다수당의 힘자랑이고 횡포이며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발목잡기를 넘어선 협박에 가까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변변이 국정 운영의 발목이 잡혀서는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조차 없다. 지금은 민생 경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의 협조가 절실한데 민주당은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의석 수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 위해 같이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민주당에 호소했다.

서선욱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